

“정권교체 野心을 키워라”



당 대표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1일 오전 광주시 동구 무등산 등산로에서 시민들을 만나 새해인사를 하고 있다.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1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열린 '당원과의 희망회담'에서 출마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남북 정상회담 올해 열릴까

박대통령 “분단 70년 마감”...김정은 “못할 이유 없다”

올미년 새해 벽두부터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남북관계가 화해모드로 전환될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힌 신년사에 대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육성 신년사를 통해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며 남북정상회담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4면〉

특히 두 정상 의의지나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서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을 맞은 올해 남북정상회담의 전격 실현도 가능하다는 선부론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 제1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신년사 육성 연설에서 “북남 사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해 끊어진 민족적 유대와 열매를 잇고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며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분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

는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며 남북정상회담 개최 용의를 밝히고 “대화과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외경제관계로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 개발 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야 한다”며 남북 경제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제1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또 신년사의 상당 부분을 남북관계에 할애해 올해의 핵심 과제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제1위원장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통일준비위원회 이름으로 제안한 남북당국 간 회담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상회담까지 거론하며 강한 대화의지를 밝힌 만큼 올해 남북관계에 급진적 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1일 올미년 신년사에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결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끌어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뉴스 초점 기रो에 선 호남정치

2015년 호남 정치가 야당 본산의 명맥을 유지할 것인지 기로에 섰다.

헌정 사상 첫 여야 정권교체를 이룩한 김대중 정부의 기반이자, 노무현 정부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 정치권은 열린우리당 창



“어려울 땐 가족” 노부부의 희망 메시지 ▶6면

광주일보 신춘문예 동화·시 당선작 ▶16·17면

‘야권의 심장’서 DJ이후 리더 배출 못해 변방으로... ‘존재감’ 상실 새정치 2·8 全大 박지원·박주선·주승용 지도부 도전 결과 주목

당 이후 좀처럼 정치적 존재감을 찾지 못했다.

역사의 길목마다 흐름을 주도했던 호남 정치가 야권의 심장에서 사실상 종속 변수로 몰락했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친노(친 노무현) 그룹이 새로운 야권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치적 확장성이 있는 리더십을 창출하지 못한 호남 정치는 변방으로 밀렸다는 평가다.

특히 일부 지역 중진 의원들은 주류 세력에 기대며 정치적 생존에만 연연해 호남 정치의 동력을 약화시켜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2·8 전당대회는 호남 정치의 미래를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장, 당권을 놓고 박지원 의원(목포시)이 문재인 의원(부산 사상)과 정치적 운명을 건 진검 승부에 나섰다.

〈관련기사 3면〉

여기에 박주선 의원(광주 동)도 당권 경쟁 구도에 가세했다. 박지원 의원과 박주선 의원이 이번 당권 경쟁에서 어떠한 성

적을 내느냐에 따라 호남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승용 의원(여수 을)도 호남 대표 주자로 최고위원에 도전한다. 주 의원이 호남 정치의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 경쟁에서 1~2위의 상위권에 포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우윤근 의원(광양·구례)은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타결, 예산안 법정 시한 준수, 자원외교 국조 합의 등 ‘소리 없이 강한’ 정치력을 과시, 호남 정치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정세균 의원과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 등은 시련의 계절을 맞고 있다.

정세균 의원은 초반 당권 경쟁 과정에서 ‘빅 3’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정치적 현실을 고려한 끝에 결국 불출마로 선회, 정치적 내상이 심하다는 평가다. 민주당 대권 주자였던 정동영 전 의원은 아예 탈당과 진보적 성향의 신당 창당을 통한 야권 재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

배 전 의원은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 광주 광산 을에 도전했다가 지도부의 전략공천 카드에 좌절된 뒤, 광주에 등지를 들고 권도중대를 모색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8 전대 결과가 호남 정치권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대에서 지도부 경선 결과가 최악일 경우, 호남지역민의 상실감이 극대화되면서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당 창당의 흐름과 연동되는 것은 물론 7·30 보궐선거에서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당선과 같은 새정치연합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호남 민심은 정치적 명분도 실리도 없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새정치연합에 대한 분위기가 크게 악화됐다”며 “이같은 호남 민심은 새정치연합의 전대 결과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면서 야권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 7개 축제 ‘문화관광축제’ 선정

전남지역 7개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15 문화관광축제에 포함돼 광역자치단체 중 최다 기록을 세웠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표축제 2개, 최우수축제 9개, 우수축제 10개, 유망축제 23개 등 모두 44개의 축제를 ‘2015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한 가운데 전남에서는 강진청자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가 최우수축제로 뽑혔다.

이어 담양대나무축제는 우수축제로 선정됐고 목포해양문화축제, 보성다향제, 정남진장흥물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등 4개는 유망축제로 뽑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우수축제로 2억5000만원, 우수축제로 1억5000만원, 유망축제로 90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광주의 경우 최우수축제로 광주7080 중앙축제가, 유망축제로 광산우리밀축제 등이 각각 선정됐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0일 우리나라 농경문화를 보여주는 김제지평선축제와 세계 겨울의 7대 불가사의로

■ 2015 문화관광축제

최우수축제 (2억5000만원)	강진 청자축제
우수축제 (1억5000만원)	담양 대나무축제
유망축제 (9000만원)	목포 해양문화축제 보성 다향제 정남진 장흥 물축제 영암 왕인문화축제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안은 국비지원 액수

소개된 화천산천어축제를 2015년도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그 밖에 광주7080 중앙축제 등 최우수축제 9개와 우수축제 10개, 유망 축제 23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한 바 있다.

김명원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 축제가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이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됨으로써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며 “축제 상호 간 연계협력을 통한 비용절감과 관광객 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015년의 기분 좋은 첫 날입니다

올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꿈을 꾸는 우리는
더 행복해 질 것입니다

새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